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제공일: 2026년 7월 14일

■ 제공자: 한정훈 부연구위원

전화: 061-820-2038

■ 배포부서: KREI 성과홍보팀

전화: 061-820-2127

■ 매수: 2매

■ 사진: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농식품 공급망 진단 필요”

KREI,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1/2차년도)’ 통해 발전방안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1/2차년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후변화와 국제 공급망 불안, 농업인력 감소 등 대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SCOR(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 모델을 적용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급망 안정성은 6.397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농산물 저장 및 비축 여건, 식품제조업체 자본 안정성, 농식품 수입국 다변화는 개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분야로 분석됐다.
- 또한 농가와 식품제조업체, 도매·소매업체, 소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급망 참여자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농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영안정 정책을, 식품제조업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소비자는 농식품 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는 공급망 정책이 생산·유통·소비 주체별 특성을 반영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연구진은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 간 계약재배 확대 ▲농가의 기상정보 활용도 제고 ▲중소 식품제조업체 R&D 투자 확대 ▲민간 저장·비축 역량 강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수입국 다변화 ▲가격변동에 대한 구조적 대응체계 마련 ▲지속적인

공급망 진단 시스템 구축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정훈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변화로 농식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취약한 분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매년 공급망을 평가하는 ‘한국 농식품 공급망 지수(Korea Agri-food Supply Chain Index: KASCI)’를 구축한다면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